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3호 【루계 제2544호】

주체108(2019)년 6월 1일 토요일 음력 4월 2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은령도자의 숭고한 정치방식

국제사회계가 격찬

애민헌신의 끝없는 현지지도장정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중국 홍콩잡지 《국제련계》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령도자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

조선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조선의 령도자들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사회주의는 **김정은**각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인민을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떠올리시는데 그이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정치철학의 가장 철저한 구현자이시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은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위원장은 이 세상 그 어느 지도자가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위해 깊은 밤 무궤도전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본 일이 있었는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방식에서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인간미와 천품을 느끼였다고 피력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애민정치가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그이의 정치방식을 평하는 글에서 현지지도를 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영상은 대중적이고 다심하신 모습으로 일관되여있다, 지적하시는 내용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느낄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인민을 위한데로 집중되여있다.

수리아신문 《티슈린》은 **김정은**각하는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를 받고계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다, 인민사랑은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이다고 지적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서 겪으시는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시듯 인민을 받들자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를 떠나서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과 조선인민이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자주정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정은**동지는 절세의 위인,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라고 찬양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귀중히 여기고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현 정세를 보다 좋게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여야 할 시기에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호소문이 발표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가 발기한 제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체 행위들을 저지시키며 평화에로 향한 분위기를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에로 이어나갈것을 주장하는 국제적행동에 합류할것이다.

민족자주정신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것은 진보적인류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를 강화하며 온갖 대조선제재를 반대해나설것을 호소한다.

전인디아학생련맹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호소문은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제의하였다.

우리는 이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마련된 평화에로 향한 분위기를 항구적인 평화체제에로 이어나갈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다.

또한 자주의 기치높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가 련대성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된지 1돐이 되는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동기간》으로 설정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지적하고 이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판문점선언채택후 조선반도정세발전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명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모든 성원조직들에 호소하였다.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남사이의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립장이 담겨져있고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비껴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조선민족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통일강령이다.

6.12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도 성명에서 조선반도에 마련된 평화에로 향한 분위기를 항구적인 평화체제에로 이어나갈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행동들에 합류할것이다, 또한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은국무위원장연구모임

1차발표대회 계획을 공시

남조선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이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흠모열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5월 17일에 전하였다.

신문에 의하면 올해초부터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이 **김정은**국무위원장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김정은국무위원장연구모임은 그 연구결과를 알리는 1차발표대회를 오는 6월 8일 서울에서 진행할것이라고 공시하였다.

단체는 공시문에서 2018년 4.27판문점선언발표를 계기로 자주통일의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북을 잘 알아야 통일을 앞당길수 있고 북을 잘 알기 위해서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라선학생소년궁전 준공식 진행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라선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라선시의 중심부에 일떠선 궁전에는 다기능화된 소조실들과 수백석의 관람석을 가진 극장, 체육관 등이 꾸려져있어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5월 24일에 진행되였다.

조정호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궁전교직원, 학생소년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신영철 라선시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악기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뜻을 받들고 라선도시설계연구소, 라선시건설기계화려단, 라선가구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단위일군들과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현대적미감이 나게 설계를 완성하고 자력갱생의 기풍으로 건물골조공사, 내부공사 등을 다그쳐 끝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도 애국의 마음안고 나무심기와 잔디밭조성을 비롯한 궁전주변환경을 일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궁전일군들과 교직원, 종업원들이 당의 사랑과 은정이 어려있는 건물들과 설비, 비품들을 언제나 알뜰히 관리하고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 앞날의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고 과외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궁전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세월》호참사의 원흉과 절대로 공존할수 없다, 《자한당》을 반드시 해체시키자

서울에서 5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 초불투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5월 25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부산과 울산, 대구, 대전등지에서 모여온 5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황교안, 라경원 처벌하라!》, 《황교안 정계퇴출! 구속수사! 자유한국당 완전해체하라!》, 《자유한국당 해체!》, 《끝까지 책임자처벌》, 《반드시 진상규명》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국민이 《자한당》을 규탄하는것은 이 패거리가 《세월》호참사의 주범을 비호하고 처벌을 방해하였으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기때문이라고 격분을 터뜨렸다.

그들은 최근 참사진상은폐의 주범이 대표로 있는 《자한당》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독재와 살인《정권》의 후예이며 부정부패로 가장 썩은 집단인 역적당패거리들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민생》을 운운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자한당》의 행태를 보며 명백한것은 이 패거리가 있는 한 국민의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초불시민들의 념원인 적폐청산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하며 여기서 《자한당》은 절대로 자유로울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우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파렴치범》으로 모욕당하지 않게 《세월》호참사의 원흉이며 그 진상을 은폐한 《자한당》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180만명이상이 참가한 《자한당》해산청원운동에 호응하여 다시 초불을 들것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전 지역의 곳곳에서 진실과 정의의 초불투쟁을 더욱 광범히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초불을 들고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를 웨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민심을 속일수 없다

누가 《날고기 안 먹는 승냥이가 있다.》고 한다면 대뜸 그런 사람을 두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할것이다.

왜냐하면 날고기를 안 먹는 승냥이는 없기때문이다.

구태여 세살 난 아이도 다 알 이런 소리를 왜 하는가 하면 이제는 승냥이도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열린 광주인민봉기 39년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패들이 각계층의 분노와 거센 항거에 직면하여 곤욕을 치른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당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리며 기세를 올리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패들이 도착하자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에워싸고 야유, 조소를 보내였으며 지어 물을 뿌리고 의자를 던지며 거세게 항거하였다. 이로 하여 2분정도면 갈 기념식장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20분만에 겨우 도착하는 등 《자유한국당》패들이 톡톡히 망신하였다.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황교안은 행사전기간 군중의 눈치를 살피며 긴장되여있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보수패당내에서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손까지 흔들며 따라부르면서 얼빠진자처럼 놀아대다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뺑소니를 쳤다.

문제는 이렇게 혼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기념식에 간것은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곳이기때문이며 광주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광주시민들을 만날것》이라는 립장문을 낸것이다. 한편으로는 광주인민봉기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심히 모독한 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하고 광주학살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구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입 간지러운 소리를 하였다.

《자유한국당》이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외곡은폐하고 그 규명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으며 살인마 전두환을 극구 찬미하다 못해 광주인민봉기를 《폭동》으로, 봉기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폭도》, 《피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동을 거리낌없이 부린 범죄집단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군사파쑈독재의 후예가 어쩌다 광주인민봉기기념식에 참가하고 지금껏 부르지 않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불렀다고 해서 그 죄과가 덜어질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또 광주를 찾겠다고 하는 등 이 지역민심을 돌려세워보려고 무진애를 쓰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다.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전라도지역이 다음해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전략지역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고 하면서 황교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높은 전라도지역에서 수모와 멸시를 받더라도 끈질기게 찾아다니면 지역민심을 일정하게 돌려세울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전라도를 잘 리용하면 《대통령》후보로 나설수 있는 여론적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계산한것과 관련된다고 평하고있다.

결국 저들의 재집권야망실현에 전라도지역민심을 리용해먹자는것인데 과시 교활하기로 소문난 황교안다운 생각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까마귀 꿩잡을 계교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달라진듯 한 흉내를 내봐야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이 없다.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듯이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려는 《자유한국당》의 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남녘인민들이기에 역적당의 매장을 위해 투쟁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다재다능하신 령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세계적추세에도 밝으신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고계실뿐아니라 첨단과학기술에 능통하시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매우 밝으시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의 제품을 보시여도 세계적수준에서 만들도록 하시였다.

어느 해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종합조종실의 PLC조종반실에 들리시였을 때 한 과학자가 PLC조종장치에 교류접촉기대신 무접점접촉기를 리용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대뜸 고체계전기를 썼다고 궁정해주시였다. 순간 그 과학자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무접점접촉기를 쓰는것이 일반적인 례이지만 그 실현방식이 여러가지여서 해당 전문가들도 세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장치를 썼는지 잘 알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얼핏 스쳐지나시는 그 순간조차 무접점접촉기의 가장 발전된 방식인 고체계전기를 알아보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칠감제품견본전시대앞에서는 조선말과 수자를 배합하여 표기한것을 보시고 국제적인 색표기법을 써야 한다시며 손수 실례까지 드시여 전문가들은 더욱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한 그이의 요구성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몇해전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국수기계에서 절단되여나오는 국수를 보시며 길이가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국수발의 길이가 22cm라는 공장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국수발의 길이가 22cm이면 짧다고, 이딸리아의 스빠게띠보다도 길이가 짧다고, 단발머리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저가락으로 국수를 건지는 형상을 해보시며 국수라는건 길어서 이렇게 먹는것인데 국수발의 길이는 30cm정도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찾으시여 김가공품의 가지수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하시던 원수님께서는 문득 《후리가께》라는 김가공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리가께》라는 가공품이 있는데 맛이 참 좋다고, 김졸임과 후리가께가 공품을 밥, 우동, 빵, 과자 같은데 섞어서 먹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리가께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지난해 6월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은하수》화장품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을 대비적으로 분석하여보시면서 공장제품들의 질을 새롭게 갱신할데 대해서도 이르시였다.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세계적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높으신 뜻이다.

개관을 앞둔 자연박물관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중앙홀에 전시되여있는 공룡화석을 보시며 공룡화석을 사진자료들을 보고 만들었다는데 척추에서 꼬리마디까지 실감이 나게 정확히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나라 고고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 공룡화석을 보게 되면 척추의 뼈개수가 정확한가 하는것까지 세여볼수 있다고, 공룡화석을 실지 공룡과 똑같이, 척추의 뼈개수도 정확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세계적인 추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몇해전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위생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어떤 나라들의 병원들에서는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발에 덧카바를 신고 들어오도록 병원입구에 덧카바씌우는 장치를 설치해놓고 리용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에서도 그런 장치를 설치하여 참관자들이 리용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문수지구에 일떠선 엘도라도식물놀이장과 생울림극장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도, 말린 꽃제품과 아이들이 신는 《키티》양말과 《뿌》양말에도 세계적수준을 압도해나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에 외국에서 갓 개발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형의 전동차용의자인 《오플라》를 설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사실을 전하면서 《국내언론에서는 거의나 언급되지 않던 새 제품의 의자를 현지발표 몇개월만에 알고계셨던것을 감안하면 최신해외추세에 대한 **김정은**위원장의 높은 관심을 엿볼수 있다.》라고 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처럼 최신과학기술에 밝으시고 세계적추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것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이다.

인민을 세상에 보란듯이 세워주려는것은 그이의 자존심이고 한생의 꿈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인재중시기풍으로 국풍으로

오늘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인재가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의 하나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기가 맡은 사업을 훌륭하게 할만 한 자질을 갖춘 사람, 일정한 분야에서 한몫 담당할만한 재목이 되는 사람을 인재라고 한다.

인재를 중시하는것은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의 시대는 인재들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지금 첨단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식자원을 틀어쥔 인재들이 활약하고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추동되고있다. 인재들의 핵심적역할을 떠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종합적국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재야말로 나라의 재부이고 힘이며 승리의 보검이다.

인재를 중시할 때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할수 있다는것은 공화국이 걸어온 전로정이 보여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공화국에서는 인재육성을 자립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을 인재육성의 원종장으로 일떠세웠다. 그리고 전쟁시기에는 승리를 확신하며 싸우는 고지의 용사들을 대학으로 소환하여 공부시키는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류례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은 모든것이 다 파괴된 빈터우에서 재더미를 헤치고 불과 14년만에 공화국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공화국에서 힘겨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중단없이 키워낸 과학자들이 오늘 나라의 국력강화와 첨단돌파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사실은 인재중시를 자립경제건설의 관건적고리로 내세우고 힘있게 추진시켜온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증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립경제발전에서 인재의 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인재육성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려는것은 그이의 숭고한 뜻이다.

지난해 7월 어느날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읍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들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대교육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할수 있다고, 감자농사만 과학화, 집약화할것이 아니라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을 인재농사라는 단 한마디 표현으로 통속화하시고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신 그이의 말씀에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온 나라에 인재육성열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고귀한 철리가 담겨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9월 창립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여 대학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 붉은 과학자들로 키워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인재를 중시하시고 교육을 중시하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인재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고있다.

중등일반교육의 비약적발전은 훌륭한 인재육성의 기본고리이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는것처럼 학생들에게 기초교육을 주는 중등일반교육을 잘하여야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다.

최근에 공화국의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눈에 뜨이는 발전이 일어나고있다.

온 나라 학교들에서 가상현실기술, 증강현실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방법들이 창조되고 가치있는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이와 함께 시, 군들에서 본보기학교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있으며 전사회적인 교육지원열풍속에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고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평양교원대학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꾸려지고 그 성과가 전국에 일반화되고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지의 대학들에서 나라의 자립경제발전에 단단히 한몫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육성되고있다.

외국의 한 인사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봉쇄속에서도 조선이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는것은 교육과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기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로씨야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을 언제나 나라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계신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의 주체교육은 끝없이 비약하고있다.》라는 글이 게재되였다.

인재를 나라의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으로 규정하시고 인재육성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에는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될것이며 더 밝고 훌륭한 미래가 펼쳐질것이다.

장형범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

준공테프를 끊은 원아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4(2015)년 6월 1일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그해 4월에도 완공을 앞둔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자고 하시였다.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이께서는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래야 어른이 되여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소나무》책가방

어느 해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이윽토록 지켜보시였다.

한손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까지 들고가는 학생들의 불편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줄 결심을 하시고 해당한 대책들을 취해주시였다.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생산된 가방들을 보시면서 가방들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가방들을 보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면서 새 가방에 《소나무》라는 이름을 친히 달아주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대중봉사기지들가운데는 광복거리에 자리잡은 향만루대중식당도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개건된 식당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을 위한 일반료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료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떨구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음식과 료리를 더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향만루대중식당은 누구나 즐겨찾고 손님들이 자기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맛보는 음식점으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대중급양봉사시설 하나를 통해서도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오늘 공화국의 모든 정책, 시책에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되여있다.

최근년간에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에는 인민을 위하여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집약되여있다. 민들레학습장공장에는 공장에서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며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어리여있다.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펴시는 정치의 본질이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투철한 인민적관점과 립장이 담겨져있다.

주체104(2015)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음료, 빵, 과자 등 여러 제품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들을 보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이 식료품들을 다 좋아한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구상하고 설계하시는 일들은 다 인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여있고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105(2016)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국내산 원료와 자재로 여러가지 쟈크, 멜라민수지제품들을 생산하는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질높은 쟈크와 멜라민수지제품을 대량 생산하는것이 못내 기쁘시여 그이께서는 그 공장을 급수있는 공장, 노란자위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좋은 기념품과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인민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자!》는 구호에도 어리여있고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재부에도 깃들어있다.

지난해 례년에 보기 드문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함경북도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를 돌아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 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농장건설과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총적방향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대중려객운수수단인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에도,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류경김치공장, 치과위생용품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룡악산샘물공장 등 모든 창조물들과 인민이 덕을 보는 대중소비품들에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최금룡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금도금공예 《구룡구》

금도금공예 《구룡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중국 베이징길성창문화유한공사 리사장이 주체106(2017)년 8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기회에 삼가 올린 선물이다.

리사장은 지난 시기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과정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에 매혹되였다.

특히 최근년간 나날이 변모되는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게 된 그는 오늘날 조선이 세계정치무대를 뒤흔들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금도금공예 《구룡구》를 마련하여 선물로 올리게 되였다.

받침대우에 고정되여있는 구모양의 공예품은 여의주를 입에 문 아홉마리의 룡이 구름우에서 노는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중국에서는 길한 수로 전해오는 수자 9와 룡을 형상한 구룡구를 힘과 행복의 상징으로 일러오고있다.

선물의 규격은 길이 64.5㎝, 너비 64.5㎝, 높이 73㎝, 구직경 51㎝이다. 재질은 합성수지이며 금도금을 하였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리사장은 《나는 조선을 세계정치무대의 중심에 내세우시고 그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이 맞서나가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 탄복하여 이 선물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아이들의 웃음에 비낀 밝은 미래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이 나라의 아이들이 배움의 나래 펴고 행복의 웃음꽃 피우며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공화국의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아이들의 모습은 당대사회의 명암이 극명하게 비껴있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천진한 아이들의 얼굴표정은 꾸며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다.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지는 기쁨과 고통을 있는그대로 감수하며 려과없이 드러낸다.

하기에 한 철학자는 최고의 진실한 인간은 아이들이라고 한적이 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사회의 진실을 투시해볼수 있으며 미래도 엿볼수 있다.

미래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두메산골학교와 외진 섬마을 분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메아리치고있다.

공화국의 아이들이 이렇듯 그늘 한점없이 행복에 겨워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친부모와도 같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고계시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조국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해방직후 인민주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는 행복관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미래사랑의 력사를 이어오시였다.

하기에 아이들은 일년 삼백예순다섯날중에 그이를 만나뵙는 설날을 제일 기쁜 날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후대들을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였다.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고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의하여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후대들을 위한 인민적시책이 중단없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야영소와 병원, 유희장과 놀이터들을 꾸려주시고 후대들에게 극진한 정을 다 안겨주고계신다.

제일 기쁜날은 온 나라 아이들이 새옷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던 날이였고 쌓이신 피로를 푸시던 날도 춤추고 노래부르는 아이들속에 계신 날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생활에서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는 때라고,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고있는 행복관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미래사랑의 력사를 이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훌륭히 짓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다 주지 못한 사랑이 있을세라 마음을 놓지 못하신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였고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옥류아동병원에까지 몸소 들리셨다.

그이께서는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육아원, 애육원부터 건설하도록 하시였고 평양시를 본보기로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들을 세우도록 하시여 원아들이 그늘 한점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시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끝이 없이 벌어지는 분쟁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부모잃은 고아가 되여 락엽처럼 버림을 받고있으며 사회의 희생물로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스러지고있는 가슴아픈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주되는 힘이 돌려지고있으며 아이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나라의 기둥감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예로부터 농작물은 한해를 위해 심고 나무는 십년후를 보고 가꾸며 사람은 백년대계를 위해 키운다고 했다.

민족의 앞날, 국가의 만년대계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

아이들의 밝고 행복넘친 모습에는 공화국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문제해결의 주인

오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는 날로 강렬해지고있다.

공화국은 물론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도 북남관계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겨레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변함없는 지향이며 요구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우리 민족문제해결의 주인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문제해결에서 주인구실을 하여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민족문제해결의 결정적 힘도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있다.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분렬시킨 침략적인 외세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결합되여 조선반도에 통일강국이 일떠서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리치이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필연코 민족문제해결에서 복잡성을 산생시키고 동족간의 오해와 불신만을 쌓게 한다.

오늘날 북남관계문제,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의연하며 집요하다. 하지만 북과 남이 민족문제해결의 주인이 될 때 극복못할 난관, 넘지 못할 요새란 없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들이 이를 확증하고있다.

민족문제해결에서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여기에 북남관계발전의 넓은 길이 있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구걸하는것과 같은 행위들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것과 같다. 강도에게 대문을 열어주며 집을 봐달라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인것이다.

민족의 총의가 담겨진 북남선언들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황진혁

남녘민심이 보여주는것은

지난 5월 24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는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리행방해세력 제압실천단 백두수호대》의 창설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백두수호대》 성원들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제압할것》이라는 단체의 결성목적을 밝히면서 기자회견문을 랑독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 그들은 《분단적폐세력들에게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마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기때문인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약속을 폄훼하고 시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계속해서 방해하여 결국엔 추진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9월평양공동선언 또한 끊임없이 평가절하시켰다.》고 하면서 《해방이후 우리 민족사에 사사건건 개입하여오던 미국은 지금도 남북관계에 계속해서 개입하고있다. 남북관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망발과 함께 〈한미실무팀〉이라는 일제의 〈조선총독부〉같은 기구를 만들고 좌지우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백두수호대〉는 이러한 반통일, 분단적폐세력들을 제압하고 반드시 해체시켜 우리 민족이 열어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나갈것이다.》고 결의하였다.

서울한복판에서 울려퍼진 이들의 웨침은 비록 크지 않았어도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려는 남녘의 민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여러 단체들을 조직하고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국민주권련대》, 《대학생진보련합》 등 13개 단체가 모여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부산, 광주, 대구 등 여러 지역들에 지역별조직이 무어졌으며 《꽃물결실천단》, 《백두수호대》와 같은 단체들도 조직되였다.

이 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곳곳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완전히 페기하라!》, 《미국은 〈한미실무팀〉 해산하고 내정간섭 하지 말라!》, 《통일의 근본장애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동족대결의식이 뼈속에까지 들어찬 《자유한국당》과 극우보수단체들이 이 통일운동단체들을 《보안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우익깡패들을 내몰아 단체성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 온갖 비렬한 망동을 다 부리였지만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들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지난해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백두수호대》가 다시 결성식을 가지고 북남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한 공세적 활동을 전개한것은 평화번영과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민심의 요구를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은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이 곧 평화번영과 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것을 페부로 깊이 절감하였기때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진군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전진의 보폭을 같이하며 기어이 이 땅우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통일교실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우리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다.

다 알고있는것처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지난해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체육과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북과 남은 지혜를 합치고 마음을 합쳐 지난해의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것이라고

남조선청년단체가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련대가 5월 18일 5.18광주인민봉기 3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39년전 광주는 전두환신군부의 총칼에 의해 피로 물들여졌고 광주시민들은 쓰러지면서도 민주수호를 웨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살인주모자들도 처벌을 받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주둔 미군요원출신인 김용장의 증언으로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명령한 자라는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학살자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5.18학살후예인 《자한당》은 망언을 일삼으며 진실을 외곡하고 5.18정신을 훼손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지어 《자한당》대표 황교안은 파렴치하게도 5.18망언에 대한 사죄와 망언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이 광주를 찾았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5.18학살자인 전두환일당, 그 배후인 미국 그리고 망언을 일삼고있는 학살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을 처벌하자!

분렬체제를 끝장내는것이 곧 5.18정신을 계승하는것이다.

청년련대는 5.18정신을 계승하여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을 허무는 북남로동자들

얼마전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들은 《5.1절 129돐기념 북남로동자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온 겨레에게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북남로동자단체들은 성명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헌신적노력에 련대를 전하며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북남로동자의 굳센 련대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의 선두에서 언제나 함께 나아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북남의 로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로총은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2019세계로동절대회》를 열고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전세계로동자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것을 시위하는 국제적명절인 5.1절을 계기로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들이 북남선언리행의 선두에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아갈 의지를 표명한것은 겨레의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 의로운 장거이다.

돌이켜보면 분렬의 벽을 허무는 통일의 길에서 북남의 로동자들은 언제나 어깨를 겯고 앞장에 서서 투쟁하여왔다.

처음으로 북남의 로동자가 상봉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은 멈춤을 몰랐다. 1999년 처음으로 평양에서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진행되였을 때의 감격과 흥분을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그때부터 북남의 로동자들은 손을 굳게 맞잡고 련대와 단합을 강화해가면서 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세상을 안아오는데서도 응당 북남의 로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어제나 지금이나 북과 남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고패치는 통일애국의 숨결이고 숭고한 시대적사명감으로 되고있다.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에 마침내 찾아온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북남로동자들의 통일함성은 더욱 우렁차게 강산을 진감시키고있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받들고 북남의 로동자들은 서울에서 뜻깊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를 조직하고 통일열의를 한껏 드높이였다. 민족화해와 단합의 후더운 열기가 넘쳐흐르는 속에 북과 남의 로동자축구선수들이 대형통일기를 앞세우고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로 뜨겁게 환영하였다. 경기가 시작되여 선수들이 좋은 경기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관람석의 응원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관중들은 경기의 승패여부를 떠나 북남의 로동자선수들이 한데 어울려 땀흘리며 우애를 다지는 모습에 감동되여 너도나도 환성을 터치였다.

드넓은 경기장은 관중들이 웨치는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이라는 우렁찬 함성으로 떠나갈듯 하였다.

북남의 로동자들은 왜 한목소리로 평화와 통일을 웨쳐오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길에 우리 겨레의 밝은 미래가 있고 로동자들의 삶과 희망도 있기때문이다.

로동자들의 손에는 창조의 마치가 쥐여져있다. 자연을 정복해가는 인간들의 투쟁에서나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해가는데서 로동자들은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그 힘있는 로동자들이 지금 분렬의 어둠이 가시여지지 않은 이 땅에서도 서로 어깨겯고 통일투쟁의 선봉에 나서고있으니 얼마나 장하고 긍지스러운 일인가.

통일운동의 선두에 선 로동자의 억센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겨레가 몰아가는 통일렬차는 더욱 힘차고 위력한것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은 날로 우심해지지만 우리 겨레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김리만

판문점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2018년 8월 서울에서 진행된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에서—

남조선의 민가협이

민족자주립장을 견지할것을 강조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3일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서울시 탑골공원에서 제1223차 목요집회를 열고 북남선언리행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현 당국의 사대근성적태도를 비판하였다.

집회에서 권오헌 량심수후원회 리사장과 로수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연설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현 당국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여 그 토대에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과 남이 합의한 선언들을 부정하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당국은 《중재자》가 아닌 주인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자주, 민족공조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문제를 어떤 외세의 간섭과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립장과 자세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보안법》페지와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웨치였다.

본사기자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5월 24일 남조선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와 민주로총 안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해제》를 요구하였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상임대표는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또 지나치게 보수세력을 의식해 아무 실효도 없는 자해적행위인 5.24조치조차 여전히 해제하지 못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어 《지금 즉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조치들을 〈정부〉가 나서서 자주적으로, 선도적으로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도 《5.24조치도 해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왜 우리 민족이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가. 민족끼리 교류하고 협력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와 민주로총 안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력사적흐름에 맞게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는 6.15공동선언발표 19돐을 맞으며 오는 6월 15일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민통일문화제 《손잡고 평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였다.

본사기자

적폐의 본산 《자한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고발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탄핵되였다.》, 《응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꿇고 석고대죄하던자들이 최근 어디서 독물을 주입받았는지 기가 올라 《좌파독재타도》, 《정권심판》을 부르짖으며 보수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광하고있다.

민족의 재앙덩어리, 평화의 암적존재로 락인찍혀 력사의 뒤길로 사라졌던 무리들이 다시 세상밖으로 기여나와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겠다는것은 력사의 진보와 정의로운 초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은 《민생》과 《안보》를 방패삼아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범죄행위를 가리우고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는 《자한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파쑈독재의 《혈통》을 물려받은 깡패집단

모든 사물현상에는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다.

남조선보수의 《적통》으로 자처하는 《자한당》의 래력을 파내려가느라면 외부로부터 이식된 파쑈독재의 썩은 즙을 걸탐스럽게 빨면서 진보와 민주의 원쑤로 자라난 보수의 정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외세를 업고 국토를 분렬시켰으며 전쟁의 불까지 지른 리승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채고 악명높은 《유신》독재자로 군림하여 18년이나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었던 박정희, 치떨리는 민중대학살을 벌려놓고 《피의 목욕탕》속에서 벼락출세의 감투끈을 잡았던 전두환, 로태우를 비롯하여 《자유한국당》이 《영웅》으로, 《우상》으로 떠받드는자들은 하나와 같이 극악한 파쑈교형리들이였다.

원조상인 《자유당》때 벌써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파쑈독재를 실시하였으며 《민주공화당》시절에는 《반공법》과 《유신헌법》, 《사회안전법》을, 1980년대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개정안》 등 무려 100여가지의 파쑈악법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 피비린내나는 죄악들이 보수패당의 행적우에 어지럽게 도배되여있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꼽아보기조차 민망스러울만큼 보수세력의 당명도 수없이 바뀌고 리합집산도 부산스러웠다.

하지만 진보민주세력을 기어코 물어뜯고야말려는 파쑈적기질은 도태된것이 아니라 더욱 극악해져 박근혜역도시기에는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범한 시위자들에게까지 폭압의 칼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격랑처럼 들고일어나는 초불민심이 두려워 때국물흐르는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달고 《반성》과 《쇄신》, 《과거결별》과 《환골탈태》를 떠들며 요사를 떨었지만 까마귀한테 흰 깃털을 붙여준다고 백로가 될수 없는것이였다.

지금 《자한당》것들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눅거리면사포마저 내동댕이치고 력사와 시대앞에 파쑈의 자화상을 낱낱이 드러내놓고있다.

만인의 지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유신》독재부활을 추구하다가 감옥귀신이 된 박근혜를 무덕대고 석방시키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좌파독재저지》와 그 무슨 《심판》을 목터지게 부르짖고있다.

얼마전에는 《국회》를 야성과 몸싸움의 란장판, 희대의 《동물국회》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상복까지 주어입고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민생대장정》이라는 낯뜨거운 광대극을 벌려놓고 민심을 기만우롱하였다.

부패와 탐욕, 온갖 적폐가 구데기처럼 서식하고있는 쓰레기당이 민생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돼지주둥이에 연지바르는 격이 아닐수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민중에 대한 잔인무도한 피의 복수전으로 초불항쟁의 소중한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 란무장우에서 권력의 《자유》, 치부의 《자유》, 파쑈독재의 《자유》를 폭식하려고 꿈꾼다.

신성한 초불민심을 우롱하며 피묻은 죄악의 손을 뻗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하고 파쑈독재의 공포시대를 재현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치인의 탈을 쓴 마피아조직, 오물장에서 돋아난 독버섯,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이다.

민생파탄주범들의 기만적인 《민생》타령

《자한당》것들이 현 남조선집권세력에 의한 경제파탄실상을 알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무슨 《민생대장정》광대놀음을 한바탕 벌렸다.

황교안을 비롯한 역적당것들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경제가 파탄위기에 몰렸다.》, 《현 정부는 민생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있다.》, 《최악의 경제를 만든 최악의 정권》이라고 고아댔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보면 남조선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것은 전적으로 보수패당의 집권기간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고 후과이며 비참한 결과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추켜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은 리명박역도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한짓이란 520여만명의 실업대군과 1 000만여명에 이르는 빈곤층산생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전례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것밖에 없다.

박근혜역도가 집권하면서 남조선의 경제위기와 민생고는 더욱 악화되였다.

사대매국적기질이 골수에 배인 박근혜역도가 《외교치적》을 쌓느라 한번에 300만US$씩 탕진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을 벌려놓는 바람에 원래 제것이 없고 남에게 의존하는 예속경제, 거품경제인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산의 나락에 깊이 빠져들었다.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북남경제협력파탄책동으로 남조선경제가 입는 직접적 및 간접적피해는 수백억US$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당시 여당이였던 《자한당》무리들의 반인민적악정과 극도의 부패무능에 의해 거덜이 난 남조선경제와 민생은 지금도 파국의 심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지난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리히터척도로 5.5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건물들이 파괴된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경제와 민생을 처참하게 짓뭉개놓은 이러한 주범들이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에 대해 줴치고있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철면피의 극치이다.

력사와 현실은 《자유한국당》것들이야말로 남조선경제와 민생을 망친 주범이며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민생》의 허울을 쓰고 벌리고있는 《자한당》것들의 민심기만행각놀음은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함께 남조선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를 초래한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부패무능하고 반인민적인 악정을 되살리려는것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평화파괴자들의 파렴치한 《안보》타령

지금 역적패당은 《좌파들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되돌릴수 없는 평화를 만나게 될것이라고 하였지만 거짓말만 계속하고있다.》, 《불안하고 굴욕적인 가짜평화가 아니라 당당하고 안정적인 진짜평화를 만들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도처를 싸다니며 저들이 그 무슨 《안보파수군》, 《평화지킴이》라고 미화분식하며 악을 써대고있다.

《자한당》무리들이 조선반도에 찾아오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봄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그 얼마나 악랄하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들을 사사건건 비방하고 악랄하게 가로막아온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선언들에 대해 《안보를 무너뜨리는 전략》, 《구체적인 핵페기약속이 없는 상봉》, 《북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선언》, 《북의 리익만 반영된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중상모독하면서 《대화구걸을 멈추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족의 평화념원이 반영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도 《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포기한것》, 《북의 핵, 전략자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북에 손을 들고 투항한 자살행위》, 《북에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당한 굴욕적인 문서》라고 비방하면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절대 수용불가하다.》고 악담질을 해댔다.

역적패당이 북남합의들때문에 《안보와 평화가 무너지고있다.》, 《북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좌파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이 낳은 결과이다.》고 떠들어대는것은 지금껏 대결로 연명해온 생존공간을 완전히 잃고 력사의 뒤길로 사라지게 된 저들의 마지막운명을 건져보려는 단말마적발악외 다름이 아니다.

대결광들에게는 평화가 곧 죽음이고 안정이 곧 불안이다.

하기에 화해의 손을 내민 동족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물어뜯으며 대결광기를 부리는 반면에 침략적인 외세에는 아부하고 굴종하면서 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려보려고 피를 물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자유한국당》것들은 최근 우리 군대가 진행한 2차례의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화력타격훈련에 대해서도 《굴종적대북정책으로 돌아온것은 북의 미싸일발사였다.》, 《북을 옹호하고 사실을 외곡하는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있다.》,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해야 하며 강력한 제재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또한 북이 발사한 미싸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지역에 떨어질수 있다, 누구나 다 북이 쏜 미싸일이 탄도미싸일이라고 하는데 문재인《정부》만이 아니라고 한다, 머리우에 북의 핵폭탄이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떠들어대면서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을 극구 고취하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이 《안보》간판을 들고 떠들어대는 《좌파독재》소동과 동족대결란동은 진부한 색갈공세로 보수층을 규합하여 파쑈독재를 부활시키고 북남화해흐름을 결딴내여 과거의 첨예한 전쟁위기국면을 조성하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자한당의 고질적인 대결광증에는 약이 없다.》, 《자한당은 력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등지고 총격과 포성이 그립다면 이 땅을 떠나라.》는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적폐왕초와 함께 사멸될 역적무리

오늘 남조선에서 《민생》과 《안보》의 간판을 들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고 발악하고있는 《자한당》무리의 선두에는 적폐청산의 첫째가는 표적인 황교안이 서있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신봉하면서 역도의 파쑈적리념과 기질, 광기를 따라배우고 체질화해온 극우보수분자, 반통일대결광이다.

이자는 일찌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항쟁인 4.19인민봉기를 《혼란》으로 매도하고 내외가 한결같이 규탄배격하는 악명높은 《보안법》을 통일이후에도 존속되여야 하는 법으로, 박정희역도의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미화분식하였다.

황교안은 검사시절 서슬푸른 칼날을 휘두르며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진보인사들에게 가혹한 정치적박해와 탄압을 가하여 악명을 떨쳤다.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조선청년학생대표를 참가시켰다는 리유로 당시 전대협 의장을 철창속에 가두었고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한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암적존재》로 몰아 해산하는데 앞장선것도 바로 이자였다.

정보원정치개입사건과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을 깔아뭉개고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하는 등 《정권》유지의 돌격대로 나섰으며 박근혜의 하수인역할을 잘한 덕에 《국무총리》자리에 올라앉아 역도년의 력사교과서 《국정화》책동을 앞장에서 강행한것도 이자이다.

역도년이 감옥에 처박히자 《대통령》권한대행의 감투를 쓰고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년의 7시간행적이 담긴 문서들을 비롯한 수만건에 달하는 청와대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때문에 황교안은 남조선 각계로부터 이름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부패권력의 앞잡이로, 박근혜의 환관으로 락인되여 저주와 비난을 받아왔다.

박근혜잔당세력의 지지를 얻어 《자유한국당》 대표감투를 쓴 이자는 초불민심에 도전하여 《박정희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를 적폐로 보는것은 잘못된것이다고 뇌까리며 박근혜찌꺼기로서의 제놈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전에 초불민심이 두려워 박근혜역도와 상관없는것처럼 놀아대던 황교안은 당대표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박근혜가 너무 오래 구속되여있어 건강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 사면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하면서 박근혜석방을 공공연히 줴쳐대며 란동을 부리고있다.

박근혜망령을 내들고 친박떨거지들을 긁어모아 보수의 재집결을 이루어 《정권》찬탈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것이다.

참으로 황교안이야말로 《도로박근혜당》, 《박근혜공범당》의 주범이며 적폐청산의 첫째가는 대상이다.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패거리들이 제아무리 《민생》과 《안보》를 떠들어도 파쑈의 본당,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미치광이무리, 적폐의 본산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암적존재, 천하역적무리를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 새생활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고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랭전과 반공, 반북에 기대여 연명해온 자유한국당에 퇴장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자한당》해체투쟁에 과감히 분기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대세에 역행하여 온갖 특대형범죄를 저질러온 역적당을 영영 매장해버리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며 의로운 분출이다.

역적패당은 《민생》과 《안보》를 내걸고 제아무리 살구멍을 열어보려고 발악하여도 민심의 거센 항거와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고야말것이다.

주체108(2019)년 5월 24일
평 양
(《로동신문》에서 전재)

시

그날은 멀지 않았다

리 철 준

뻔뻔도 하구나
온 남녘을 싸돌아다니며
갖은 수모 당하고서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 또다시 모여든
《자한당》무리들의 역스러운 추태

망언과 탐욕으로 얼룩진 낯짝
광주에 들이밀었다가
비맞은 수탉마냥 물세례 들쓴 곤욕
길아닌 길로 몸사리던 치욕
그래 아직도 모자랐단 말이냐

들리지 않는가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민심의 버림을 받아
마지막숨 몰아쉬는 처지에
누가 누구를 살리고 지킨단 말인가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이제는 삼척동자도 안다
《자한당》이 벌려놓는 《규탄대회》
그것은 꺼져가는 저들의 목숨
애써 살려보려는 몸부림
재집권의 더러운 야망 이뤄보려는
민심기만술책이라는것을

열흘이고 백날이고 돌아쳐보라
피대를 돋구고 목이 쉬도록
황당한 궤변을 터쳐보라
등돌린 민심은 《자한당》
적폐의 그 본산에 침을 뱉나니

멀지 않았다
천하역적배들이 모인 《자한당》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마지막종말을 선고할 그날이!
징벌의 철추를 내릴 그날이!

《레이와》일본은 어디로 가려는가

두엄에 명주천을 씌운다고 비단더미로 되는것은 아니다.

얼마전 《새로운 시대, 새 출발》을 운운하며 왕위교체와 《레이와》(令和)시대의 시작을 선언한 일본을 보자.

일본수상 아베는 왕이 《등극》전에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일본왕의 즉위식이 있기 한달전인 4월 1일에 《레이와》라는 새 년호를 발표하면서 《강추위이후 봄이 왔음을 알리는 매화꽃처럼 모든 사람들이 래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각자의 꽃을 크게 피울수 있다는 소원을 담아 년호를 결정했다.》고 력설했다.

가관은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였는지 수상 아베가 새 년호를 발표한 날이 바로 올해의 만우절이였다는것이다.

《레이와》에 대한 아베의 발언이 만우절과 관계없기를 바라지만 《레이와》시대가 시작된지 한달이 흐른 오늘에서 보면 일본의 《새시대, 새 출발》이라는것은 역시 기대할바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흔히 새로운 출발에는 지나온 시대와는 다른 미래를 지향한다는 결심과 의지가 깃든다.

그러나 아베는 《새 출발》을 웨치며 《레이와》시대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학살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실현에 광분하고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공공연히 체육경기장들에서 과거 《황군》의 《욱일기》를 흔들어대며 군국주의광기를 부리고 우리 나라의 독도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고유령토들을 저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 무슨 《령토, 주권전시관》을 7배로 확장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일본유신회》소속의 의원이라는자는 로씨야의 꾸릴렬도를 《전쟁으로 되찾자.》라는 화약내나는 폭언을 하여 세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레이와》라는 면사포로 가리운 죄악의 두엄더미에서 복수주의, 타민족증오사상, 군국주의부활의 사무라이곰팽이들을 대대적으로 번식증대시키려는것이 일본식, 일본특유의 《새시대, 새 출발》인가.

과거는 고칠수 없지만 미래는 바로잡을수 있다고 하는것은 과거를 교훈삼아 미래로 나아가라는 의미이다.

부정할래야 부정할수 없는것이 력사이다.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였던 도이췰란드는 나치스정권이 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전후 성근하고 진심어린 여러차례의 사죄와 배상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2000년 8월에 설립된 《기억, 책임, 미래》라는 기구를 통해 강제수용소 등에 끌려가 강제로동을 했던 약 4 000만명의 피해자들중 100여개 나라에 생존해있는 170만명에게 배상도 하여왔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늘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 해본적이 없다.

도리여 수상 아베를 비롯한 고위인물들이 떨쳐나 과거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였다, 일본군성노예라는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하고있다.

원숭이가 사람흉내를 낸다고, 《내가 선두에서 책임을 제대로 다하겠다.》고 고아댔다고 한다.

헌법개정놀음과 함께 침략무력강화에도 더욱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사상 최대예산인 27조엔을 투입하여 《F—35A》, 《F—35B》와 같은 105대의 《F—35》스텔스전투기의 추가구입과 항공모함형호위함 1척, 이지스구축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된 4개의 해상기동전단조직을 계속 추진하고있다.

륙, 해, 공군은 물론 우주, 싸이버, 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력을 갖추는 《다차원횡단적방위력》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니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원칙을 《적극방위》개념으로 바꾸고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둔갑하려는 아베정권의 흉심을 너무나 잘 알수 있게 한다.

온 인류가 평화를 지향하고있는 21세기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군국주의 개꿈속에 헤매이며 해외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던 과거를 재현하려는것이 아베가 말한 《평화롭고 희망차고 자긍심있는 일본의 빛나는 미래》의 실상인것이다.

그렇게 과거의 망상을 미래로 삼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추이를 리해하지 못하는 정치적사고의 미숙과 아둔때문에 일본에는 《정치난쟁이》, 《거인국을 꿈꾸는 정치소국》, 《외로운 섬나라》, 《신뢰받을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이 떨어지지 않고 자국내에서도 《재펀패싱》(일본따돌림)이나 《모기장밖에 놓였다.》는 말이 나돌고있다는것을 일본정치인들은 자각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과거청산의 엄청난 숙제는 뒤전에 밀어놓은채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에만 집착하고있다. 《사무라이정신》을 주입시켜 해외침략전쟁을 벌리고 《천황》을 위해 《할복》, 《옥쇄》하여 《야스구니진쟈》에 《벗꽃》으로 다시 핀다는 전쟁광신병, 정신분렬증을 새로운 《문화》로 다시 펼치고싶은 모양이다.

과거 《황군》의 누더기에 양복을 덧걸치고 군국주의부활의 길로 줄달음치면서 《마음의 련결》이니, 《래일의 희망》을 운운하는것은 조선반도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황국신민화》를 강요하는 식민지통치를 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과거시대를 답습하겠다는것이 아닌가.

《레이와》일본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수 없고 그러한 미래는 환상에 불과하듯이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반성이 없고 시정이 없는 《레이와》일본의 앞길은 불보듯 뻔한것이다.

김 광 억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첫 전기기관차

주체75(1986)년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회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기술혁명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사람은 절대로 만들수 없다던 전기기관차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전기기관차제작을 시작한것은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과업이 수행되고있던 시기였다.

당시 공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식민지적편파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있었으며 3년간의 전쟁에서 입은 혹심한 파괴의 흔적은 도처에 남아있었다. 세계선진수준에 비하면 과학기술도 멀리 뒤떨어져있었다.

그때 전기기관차의 설계를 맡았던 서평양철도공장(오늘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모두 금방 대학을 나온 20대의 청년들이였다.

전기기관차제작공정은 1만 4 000여종에 22만 5 000개가 넘는 크고작은 부분품을 설계하고 가공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였다.

제작과정에서 가장 걸린것은 고속도차단기였다.

고속도차단기는 전기기관차에 대한 전력공급과 중단을 보장하는 설비로서 운전의 믿음성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수십차례의 실패끝에도 성공을 보지 못하게 되였을 때 보수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기다리고있은듯이 《콩을 먹자면 이발이 있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고속도차단기만은 수입해야 한다고 제기해나섰다.

그러나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전기기관차의 뇌수라고 말할수 있는 고속도차단기를 수입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자기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다고 하겠는가.

바로 이무렵 평양에서는 교통운수부문 열성자대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통운수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고 기술을 혁신하여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회의후 친히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전화를 거시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전기기관차제작을 끝까지 밀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용기백배하여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으며 끝끝내 그처럼 힘든 고속도차단기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주체50(1961)년 8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첫 전기기관차를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기기관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기술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이 잡아주시며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장하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기기관차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는것보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싸워왔는데 동무들을 공부시킨 보람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조선에서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수 없다고 한 외국사람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만든 전기기관차를 보니 힘이 솟는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이렇게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고, 자력갱생이 제일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붉은기》로 달며 기관차의 앞머리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만들어 붙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자체로 만들어낸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로 조선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전기기관차만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공장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뜨락또르와 자동차, 대형양수기와 굴착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운수수단들과 설비들도 만들어냈다.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장을 볼 때까지 제힘으로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의지는 모든 기적의 원천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외국인들 강조

자립, 자력으로 전진하는 조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은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대표단 단장 무함마드 에자트 아라비 카트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발전잠재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립, 자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도 끈질긴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힘있게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쥔 조선인민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고있다.

그 어떤 제재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자주의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위원장 가브리엘 곤쌀베스 마르띠네스는 방문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은 공화국창건이후 수십년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에도, 익측도 후방도 없는 조건에서도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떨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을 참관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가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절감할수 있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시정연설을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주체조선의 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된다.

곤난을 맞받아나가는 조선인민의 공격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천하제일강국으로 위용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이번에 나는 제25차 재중동포참관단의 한 성원으로 또다시 조국을 방문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조국방문이지만 매번 친정집에 오는듯 한 느낌으로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조국에 올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

조국동포들은 우리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고 친형제처럼 대해준다. 음식도 우리의 구미에 꼭 맞는 조선민족음식이고 산천도 매우 아름답다.

사실 조국에 오기 전에 여러가지로 걱정이 앞섰었다.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제재책동으로 조국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대해 익히 들어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주저앉아있는 조국인민들이 아니였다. 우리가 뻐스를 타고 농촌지역을 지날 때 자주 목격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침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논판에 나와 모내기를 하고있는 모습이였다.

그 모습에서 온 나라가 떨쳐나서 기어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국동포들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져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은 어려울지언정 하나같이 락천적이고 활기에 넘쳐있었다.

서방세계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어둡고 침침한 곳》이란 전혀 찾아볼수 없었고 기아와 빈궁, 비관과 타락에 빠진 사람들은 더더욱 없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재잘거리며 뛰여다니고 출근길에 사람들은 붐비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었다.

성정이 순박하고 량심이 깨끗하며 남을 속일줄 모르는 고지식함에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과 자기 위업에 대한 굳센 의지와 신념은 조국동포들의 자산이고 그들만의 정신적특허라고 생각한다.

조국방문의 나날 평양에 있는 문화인쇄공장을 참관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시금 깨달을수 있었다.

산뜻하게 꾸려진 공장의 손색없는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일행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의 규모도 크고 질서가 째이고 인쇄물의 질도 상당한 수준이였다.

더구나 공장의 종업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너무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들을 위해 마련된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고 탄복하였다.

로동자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리윤을 내는가고 물었더니 이곳 지배인은 다른 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이 돈을 위해 로동력을 팔지만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고, 때문에 생산장성의 잠재력은 무한대하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인간이 무엇때문에 사는가. 돈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가. 아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나라를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이들의 모습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눈씻고 볼래야 볼수 없는 모습이였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공장안을 궁전과도 같이 꾸리고 생산을 장성시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공장애, 조국애에 깊이 감동되였다.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을 어떻게 서방이 떠드는 《전체주의 희생물》이라고 하겠는가. 어떻게 제재라는 몽둥이로 자기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신념을 쉽게 허물어버릴수 있겠는가.

나만이 아니라 재중동포참관단성원 누구나가 이번 조국방문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깊이깊이 하게 되였다.

조국동포들의 아름다운 모습, 따뜻한 정을 가슴에 안고 남편과 함께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가겠다.

재중동포 최정애

문화인쇄공장을 돌아보는 재중동포참관단 성원들

방문기

제힘으로 흥하는 일터의 자랑

얼마전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온천군장공장을 찾았다.

뜨거운 향토애, 공장애를 지니고 자기 힘으로 보란듯이 공장과 일터를 꾸려나가는 이들의 일본새는 아담하게 꾸려진 공장구내를 보고서도 알수 있었다.

공지마다 조성한 도라지밭들과 휴식장에 특색있게 형상한 동물조각들도 산뜻한 구내와 잘 어울렸다.

사과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키돋움을 하고 복숭아꽃, 살구꽃 만발하여 향기를 풍기는 공장구내에서 우리는 한애숙지배인을 만났다.

그에게서 지배인으로 일한지 얼마되지 않는 기간에 일터를 훌륭히 꾸려놓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한데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생통과실을 지나면서 지배인은 공기샤와기를 자체로 제작하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지난해 2월 공장에서는 위생통과실을 현대적으로 꾸릴 결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다른 공정들은 잘 진척되였으나 공기샤와설비를 자체로 제작하는 문제는 지방식료공장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치였다.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색을 거듭하며 방도를 찾기 위해 달라붙었다.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공기샤와기를 만들자!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으니 막혔던 길이 열리고 착상과 방도들도 샘솟듯이 나왔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부속품들과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의 구입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하나하나 추진시켜나갔다.

애써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기샤와설비는 마침내 세찬 공기를 뿜어내며 동음을 울리였다. 위생통과실을 손색없이 꾸려놓으니 작업현장의 위생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공기샤와설비의 제작원가도 수입제품에 비해 훨씬 적게 든다니 자력갱생이 좋긴 좋다는 생각에 가슴이 흐뭇했다.

지방의 작은 식료공장에서 이렇듯 마음먹고 달라붙어 공장현대화에 필요한 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있으니 참으로 훌륭했다.

새롭게 갱신된 전력계통이며 종전에 비해 5배의 능률을 내고있다는 분쇄기, 착유기, 콩압출기와 태양열로 된장의 숙성을 보장하고있는 수십t능력의 떠우기탕크, 된장이송뽐프에 의한 포장 및 공급체계 등 여러 공정들도 돌아보았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석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공정을 완비하고 탕크들과 관들을 불수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고있었다.

몇해도 아니고 단 한해사이에 비약적인 전진을 가져온 성과의 비결은 제힘을 믿고 분발해나선 이 공장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을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간데 있었다.

정녕 제힘으로 비약하고 흥하는 일터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공장을 돌아보고 감탄하는 우리에게 한애숙지배인은 《한해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가면 더 몰라보게 달라진 우리 공장의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장성을 이룩해가고있는 이들의 투쟁이 더욱 눈부신 성과를 가져오리라는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강류성

수소에네르기개발에 힘을 넣어

국가과학원 수소에네르기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수소에네르기연구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수소에네르기는 수소가 산소와 결합될 때 나오는 깨끗한 에네르기로서 세계적으로 미래의 에네르기로 주목되고있으며 그 개발리용을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수소에네르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소에네르기연구소가 지닌 사명과 임무는 대단히 크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수소에네르기분야에서 빠른 기간안에 잠재력을 키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며 그에 토대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나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수소에네르기연구의 첫 성과는 2017년에 연구제작된 수소금속절단기이다.

물을 임풀스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수소산소혼합가스를 연료로 하여 금속을 절단하는 이 장치는 절단속도가 빠를뿐아니라 절단폭이 작고 공해가 없는것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장치의 주개발자는 당시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에서 실장으로 사업하던 녀성과학자인 공훈과학자 김혜림박사이다. 그는 지금 수소에네르기연구소 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지난해에 연구소에서는 보다 성능이 좋은 수소금속절단기를 개발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였다.

이 과정에 과학자들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서고있던 역화방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장치의 안전성을 담보할수 있게 하였으며 절단두께에 따르는 합리적인 가스소요량을 결정하고 임의로 조절할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내였다.

그리하여 첫 장치에 비해 가스발생량과 절단두께가 훨씬 늘어난 수소금속절단기를 연구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수소산소혼합가스를 리용하는 후판절단공정을 확립하였다.

종전의 절단설비들에 비해 소비전력이 매우 적고 많은 소재를 절약할수 있는 수소금속절단기는 현재 여러 단위에 도입되였다.

올해에 태양빛전지에 의한 수소의 발생과 수소—연료혼합연소기술을 개발할 목표를 내세운 연구소에서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태양빛전지판을 갖추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지난 2월에도 과학자들은 새로 연구제작한 건식전해조에 대한 특성평가실험을 진행하여 모의실험과 일치한 결과를 얻어냈으며 성능이 같은 경우 장치의 크기와 질량을 훨씬 줄일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연구소에서는 태양빛전지를 리용한 수소산소발생기의 시제품제작을 결속하였으며 가스발생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이미 내세운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물론 아직은 첫걸음, 시작에 불과한 성과이다.

그러나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수소에네르기연구소 과학자들의 기세는 드높다.

본사기자 황금숙

개성고려인삼으로 수십여가지의 제품을

— 장수인삼가공공장에서 —

광복거리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성고려인삼을 가지고 여러가지 약품들과 식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장수인삼가공공장이 있다.

개성고려인삼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병치료와 몸보신에 특효가 있는 약재로 알려져있다.

개성고려인삼은 장생(오래 사는것), 불로(늙지 않는것), 익기(기운을 돋구는것), 경신(몸을 가볍게 하는것)의 효능이 높은 명약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대단히 높다.

고려의학에서는 인삼이 심장을 비롯한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 가슴아픔, 설사와 밥맛잃기 등에 효과가 있으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오래 살수 있게 한다고 평하여왔다.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의 약효에 대하여 발표된 론문이 5 000여건에 달하는것만 보아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잘 알수 있다.

특히 고려인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며 당뇨병예방과 스트레스제거 및 피로회복, 기억력증진, 로화방지 등에서 특효가 있다고 한다.

장수인삼가공공장에서는 개성고려원형홍삼, 개성고려인삼엑스, 개성고려홍삼쌀, 개성고려인삼밀가루 등 수십가지나 되는 인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지난 10여년간 이곳 장수인삼가공공장에서는 개성지방에서 재배한 인삼의 성분과 그 신비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질높은 약품들과 식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내놓았다.

공장에서는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하고 인삼의 뿌리는 물론 잎과 줄기, 씨를 잘 가공하여 병의 회복기와 앓고난 뒤 잠장애, 간염 그리고 암치료 등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효능높은 약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약품포장과 설명서도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이 보장되게 잘 만들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개성고려인삼밀가루는 영양가가 높고 감칠맛이 있어 2013년 4월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리상적인 기능성식품으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최고발명가상을 받았다.

오랜 기간 사용자들을 통해 검증된 뛰여난 효능과 사람들의 눈맛을 끄는 정교하고 특색있는 포장으로 하여 이 공장의 모든 제품들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참관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있다.

장수인삼가공공장의 종업원들은 민족의 자랑이며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연구와 가공기술을 더욱 세련시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질좋은 인삼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수십종에 달하는 우량품종의

복숭아나무 육종

공화국의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에서 새 품종의 복숭아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육종하고있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 육종하여 전국의 과수원들에 보내준 복숭아나무품종들은 《중산》, 《사탕복숭아》, 《9월단복숭아》, 《애국16》호, 《추리복숭아》 등 수십종에 달한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올복숭아1》호, 《숙천복숭아3》호, 《숙천큰복숭아》를 비롯하여 6월 상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수확할수 있는 올종, 중간종, 늦종의 복숭아나무들을 육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숙천큰복숭아》는 알당무게가 크고 품질이 좋으며 중간종인 《숙천복숭아3》호는 추위와 병견딜성, 보관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국내의 그 어느 지역에서나 재배할수 있으며 《올복숭아1》호는 살구보다도 일찍 수확할수 있어 실리가 크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윤택한 생활보장에 이바지할 열의안고 새 품종의 복숭아나무를 과수부문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호평을 받은 명제품, 명상품들

—평양지하상점 2019 봄철상품전시회 진행—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어디서나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얼마전 평양지하상점 2019 봄철상품전시회가 열리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평양시 지방공업관리국과 식료련합기업소, 각 도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700여종에 40여만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였다.

전시대들을 꽉 채운 갖가지 상품들은 볼수록 흐뭇하여 어느것부터 사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제품들에 대한 가장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이 한다.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이 명제품, 명상품인것이다.

수십종의 수백컬레에 달하는 구두와 운동신들이 진렬되여있는 남포영예군인신발공장전시대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였다. 보기에도 좋고 간편한 운동신들이며 맵시있고 질좋은 구두는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공장의 리영수직장장은 이번 전시회에 많은 품을 들여 참가하였는데 다른 경공업공장들의 열의도 대단하다고, 인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더욱 질좋고 다양한 신발제품들을 생산하겠다고 말하였다.

지난 기간 명제품, 명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온 나라에 소문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도 사탕, 과자, 빵을 비롯한 백수십종의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공장의 리심평부원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 이번 전시회에 새로 출품한 종합젖사탕, 흰참깨과자, 대추단졸임 효모빵과 같은 제품들을 아이, 어른할것없이 다 좋아한다고 한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저마다 이 공장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흥그러웠다.

세계적인 록색지대로 인정되여있는 조선서해의 광량만에서 나오는 광량만류황감탕은 약효가 높은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보통강무역회사 광량만류황감탕가공공장에서는 높은 치료효과를 가지는 광량만류황감탕을 가지고 신경통과 피부병, 부인병을 치료하는데서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놓았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만든 갖가지 색갈과 모양의 나노은항균양말이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을 때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서 출품한 다양한 편직제품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윤기나게 옻칠을 한 수저, 밥죽, 그릇 등을 진렬한 전시대도 가정주부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이였다.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산물을 출품한 전시대들도 특색이 있었다. 자강도양봉교류소에서 오가산에서 생산된 토종벌꿀과 살구씨꿀, 오미자꿀 등 꿀제품들을 출품하였는가 하면 산과 바다를 끼고있는 강원도에서는 금강산의 산나물, 산열매, 약초들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토산물들을 출품하였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살고있는 한순정녀성은 장두부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단백질, 기름질이 많아 영양가와 소화흡수에 좋다고 하면서 전시회에 와서 장두부와 띄운콩을 사가지고 간다고 말하였다. 전시회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인민생활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력사문화유적들의 옛 모습을 살려

— 개 성 시 에 서 —

개성시에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력사유적들에 대한 개건보수와 보존관리를 잘하고있다.

시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20여개의 력사유적들을 개건보수하였다.

개성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는 남대문, 선죽교비각, 표충비각, 숭양서원에 대한 보수와 건물들의 단청을 잘하여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왕건왕릉유적관리소의 종업원들은 해당부문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무덤안의 벽화를 원상보존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고 수천m의 도로를 개건하였으며 주변에 휴식터도 잘 꾸려놓았다.

고려박물관에서도 대성전과 명륜당의 옛 모습을 번듯하게 살려놓았으며 력사유적유물들의 진렬전시, 배경대와 국부조명장치를 새롭게 하여 1 000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고려성균관이 민족의 재보로 더욱 빛을 뿌릴수 있게 하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만월대유적관리소에서는 개성첨성대, 만월대, 개성성의 여러곳을 원상복구하였으며 령통사유적관리소에서는 대각국사비, 당간지주 등의 풍화방지대책을 세우고 록지도 조성해놓았다.

본사기자

표충비각

지명과 그 유래

보천보일대의 지명들

보 천 보

보천보는 북방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함경도 갑산도호부에 보를 설치하면서 개척되였는데 당시 조선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설치된 보인것으로 하여 《보천보》라고 불렀다. 여기서 《보》는 성을 의미하며 《천》은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늘이 넓게 열린 마을》이라는 뜻에서 《보천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외적의 빈번한 침입을 막아내기 위하여 쌓았던 보루는 그 견고성과 크기로 하여 당시 이 지방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보천보》로 불리우던 보루의 이름이 점차 이 고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이곳을 통털어 보천보라고 불렀다.

가 림 천

가림천은 량강도 보천군 북부에 있는 북포태산의 남쪽비탈면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보천보와 곤장덕을 굽이돌아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압록강의 제1지류인 가림천은 강바닥물매가 급하고 강골짜기가 좁고 깊다. 먼 옛날 백두산지구를 순행하던 한 진장(각 진영의 첫째가는 장관)이 보천보일대의 시원한 내가에서 빨래를 하는 녀인들을 바라보다가 그 지방태생인 수하군사에게 저 내천을 뭐라고 부르는가고 물었다. 내천이 감돌아흐르는 수림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아름다울 가》자에 《수풀 림》자를 써서 가림천이라고 한다는 군사의 말에 진장은 녀인들을 다시 바라보며 가인천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는 진장에게 군사는 세상에는 자랑해야 할것도 많지만 자랑하지 말아야 할것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남들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되지만 자기 안해를 자랑하면 그만큼 넘겨다보는 사람이 많아질것이라고 가볍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가림천의 주변수림뿐아니라 여기서 나서자란 녀인들 또한 아름답다는 말이 널리 전해지게 되였다.

곤 장 덕

곤장덕은 가림천과 압록강사이에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해발 약 1 000m의 현무암덕으로서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에 있다. 곤장덕은 이깔나무를 비롯한 바늘잎나무들로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으며 강기슭비탈면은 급하나 전반적지역은 평탄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이웃나라와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하여 파견되였던 한 관리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 덕에서 곤장을 맞았다는데로부터 《곤장덕》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고 곤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곤장덕》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다.

본사기자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쟁취

중국에서 2019년 국제유술련맹 후허하오터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조선과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4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녀자 57kg급, 48kg급경기에 출전한 김진아, 전유순선수들은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019년 중국 대북공개국제륙상경기대회가 5월 25일과 26일 중국 대북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조선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카나다를 비롯한 15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440여명이 참가하였다.

녀자 1 500m달리기경기에 출전한 김국향선수는 평시에 련마해온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정철국선수가 남자 3 000m장애물달리기경기에서, 김란연선수가 녀자 3 000m장애물달리기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김진아, 전유순선수

김국향선수

제27차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조선의 나어린 연주가들 높은 예술적기량 발휘

제27차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뽈스까의 샤파르니아에서 있었다.

나이에 따라 3개 부류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조선과 중국, 로씨야, 뽈스까, 벌가리아, 이딸리아를 비롯한 18개 나라의 50여명의 우수한 피아노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1부류경연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경상유치원의 유진아어린이는 특별상을 받았으며 수상자들의 모범연주회에 출연하였다.

경상유치원의 리권윤어린이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의 김예송학생은 1부류와 3부류경연에서 각각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6월의 절기

6월의 절기에는 망종과 하지가 있다.

망종은 소만과 하지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6월 5일경에 있게 된다.

망종은 《까끄라기 망》, 《심을 종》자로서 까끄라기(벼 또는 보리의 수염)작물인 보리를 베고 벼를 심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벼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라는 말이 전해져오고있다.

하지는 망종과 소서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6월 22일경, 음력으로는 5월에 있게 된다. 하지는 《여름 하》, 《이를 지》자로서 드디여 여름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날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며 해가 비치는 량도 가장 많다. 해가 하루종일 지지 않는 반면에 남극에서는 해가 수평선우에 나타나지 않는다.

올해의 망종은 6월 6일, 하지는 6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수박을 삼가해야 할 사람

수박은 더위를 막는 좋은 과일이다.

그러나 수박을 많이 먹으면 나쁜 경우도 있다.

실례로 당뇨병환자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혈당과 뇨당이 높아져 병세가 더해진다.

심장이 약한 사람과 만성콩팥병환자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체내의 수분이 급격히 증가된다.

위염과 위궤양환자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위액의 산도가 낮아져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위가 자극을 받아 과도수축을 초래하며 설사, 위의 동통이 나타난다.

본사기자

사화

평양성의 군사 (3)

글 김정설, 그림 리성일

대동강매생이

1592년 6월 어느날 아침.

평양성방위의 중책을 진 좌의정 윤두수의 관사에서는 조정의 고위관리들과 무장들이 모여 성의 방위대책을 토의하고있었다.

좌의정이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고 막 모임을 끝내려 하는데 문밖에서 《급보를 아뢰오!》하는 다급한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여니 대청섬돌아래 기골이 장대한 군관이 부복해있었다.

윤두수는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그래, 무슨 일이냐?》하고 물었다.

《왜적의 대군이 강건너 뚝에 나타났습니다.》

군관의 굵은 음성은 비분에 떨리였다.

《뭐라구? 그놈들이 벌써?》

《예, 흉악한 왜적무리가 제세상처럼 마구 돌아치고있습니다.》

《어— 어— 일이 이렇게 빨리 닥친단 말인가?!》

윤두수는 탄식조로 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련광정에 나가있을테니 각각 맡은 군영으로 나가 명령을 기다리라!》

엄엄한 기색을 띠고 분부를 내린 좌의정은 즉시 순찰사 리원익과 함께 몇명의 무관들을 데리고 말에 올라 련광정으로 향하였다.

그들이 큰길에 나서자마자 콩튀듯 귀를 따갑게 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왜적들이 총을 놓는 소리가 아니냐?》

윤두수가 뒤따르는 군관을 돌아보고 한마디 물으니 《예, 흉측한 놈들이 우리를 놀래워보려고 되는대로 마구 놓는 조총소리옵니다.》 하고 림진강싸움때 적들과 한번 맞서본적이 있는 그 군관이 대답하였다.

《허— 이놈들이 성을 공격하는것이 아닌가?》

윤두수는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말에 채찍을 안겼다. 그를 태운 황부루는 몸통을 부르르 떨더니 네굽을 안고 냅다 뛰였다. 일행은 먼지를 뽀얗게 날리며 련광정으로 말을 달렸다.

잠간 지나 련광정에 이른 그들은 말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어찌된 일인지 련광정두리는 조용하였다. 자세히 보니 많은 군사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움츠린채 낮은 성벽에 가슴을 맞대인 자세로 앞을 주시하고 더러는 엎드려있었다. 왜군의 조총소리에 지레 겁을 먹은것이 분명했다.

《이 무슨 해괴한짓들이냐?》

윤두수는 련광정으로 오르며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웨침소리에 놀란 군사들이 일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중 나이가 지숙한 군사가 좌의정일행이 련광정에 올라선것을 보고 다급하게 웨쳤다.

《아— 위험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래 무엇이 위험하단 말이냐?》

윤두수와 리원익은 노기등등하여 여러 군관들과 함께 란간으로 다가갔다. 그것을 보고 얼굴이 까맣게 질린 그 나이든 군사는 황급히 달려와서 윤두수의 앞을 막아섰다.

《여긴 잠시도 계실곳이 못됩니다.》

《어허— 군사들이 그리도 겁이 많으니 어찌 사나운 적을 막을고.》

윤두수는 눈살을 잔뜩 찌프리며 혀를 끌끌 차고나서 그 군사를 밀어버리고 앞으로 한발자국 내디디였다.

바로 그 찰나에 앙칼스런 소리가 나고 무엇인지 기둥에 콱콱 박히였다. 이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그것 보소이다. 여긴 정말로 위험하옵니다.》

옆으로 비켜선 군사가 거의 울상이 되여 말했다.

윤두수, 리원익과 여러 군관들은 그 말을 들은척도 않고 란간가에 바투 다가서서 강건너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맞은편 동뚝에는 왜병들이 불개미마냥 까맣게 덮여있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폴싹폴싹 피여올랐다.

놈들이 기승스럽게 조총을 쏘아대고있는것이다. 이른새벽부터 영재교근처로 나와 얕은 여울목을 찾아헤매며 평양군사의 주의가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총질을 하던 놈들이 지금 멋없이 허세를 부리는 모양이다.

윤두수, 리원익이하 여럿이 손으로 란간을 짚고 서서 한참 적세를 가늠해보고있느라니 어찌된 일인지 왜병들이 총질을 멈추었다. 그러다가 몇순간이 지나자 물방으로 터지는 조총소리와 함께 련광정의 기와장들이 부서져나가고 굵은 두리기둥 웃쪽을 여러개의 탄환들이 앵두알만 한 크기로 파고들었다.

이때 갑자기 《어이쿠!》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위험하다고 막아나섰던 군사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아래도리는 곧 선지피로 붉게 물들었다.

리원익이 얼른 다가들어 그 군사를 부축하여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한쪽 다리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어어, 안되겠소.》

윤두수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손을 내젓고 군관들을 돌아보았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맞들어야 하겠다.》

분부가 내리자마자 군관들은 급히 서둘면서 부상자를 조심스레 같이 안아들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 십여보가니 그제야 성벽에 붙어있던 군사들이 떠여보고 달려왔다.

윤두수는 더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얼마후 관사로 돌아온 그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들여 사납게 날뛰는 왜병들을 제압할 방책을 의논했다. 그러나 누구도 신통한 묘수를 내놓지 못했다.

한낮이 기울무렵 련광정에 떨구어두었던 군관이 달려왔다.

윤두수는 그를 보기 바쁘게 다우쳐물었다.

《그래, 적의 형세가 어떻드냐?》

군관은 얼굴에 기쁜 빛을 띠우고 입을 열었다.

《조총질을 하던 왜병들이 쫓겨갔습니다. 이젠 강변에는 한놈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어— 그게 정말이냐?》

윤두수는 믿어지지 않는듯 눈을 크게 떴다.

《예. 강은 우리 군사들이 차지하고있습니다. 왜놈들은 그저 먼발치에서 오락가락하며 강가로 나올념을 못합니다.》

《강을 우리 군사들이 차지했다니… 도대체 어떻게 했단 말이냐? 좀 알아듣게 말하려무나.》

《강복판에 우리 배들이 떴습니다. 우리 궁수들은 그 배를 타고 건너편 기슭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며 잔망스러운 왜병들을 보이는 족족 쏘아잡습니다. 그러니 강은 우리가 차지한셈이 아닙니까!》

《허허, 네말대루 그렇구나. 헌데 그게 어디 군사들이냐?》

《그건 소인도 잘 모르옵니다. 우리 군사들을 실은 자그마한 매생이들이 떠다니면서 그놈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얽어매놓는것만 신기하게 바라보다나니 미처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무슨 일처리가 그러냐?》

윤두수는 기쁜김에 자기가 신임하는 군관을 더이상 나무라지 않고 눈을 흘기더니 《그것 참, 희한한 일이로다.》 하고 껄껄 웃었다.

군관은 그제야 제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몹시 송구스러워하였다.

《자,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니 어서 나가보자.》

윤두수는 돌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는 곧 군관 여섯을 동반하고 련광정을 향하여 달려갔다.

모내기

모내기는 오래전부터 우리 겨레가 한해농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겨온 농사일이다.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야 벼수확고를 높일수 있으며 김매기도 제때에 하여 전반적인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때문에 모내기는 철을 놓치면 안되며 벼모를 튼튼히 기른 다음에는 짧은 기일안에 끝내야 한다.

하기에 사람들은 《모내기때의 하루는 겨울의 열흘맞잡이》라고 하면서 일손을 부쩍 다그쳤다.

장정들은 미리 써레를 쳐서 논판이 풀기있고 감이 들게 하였으며 로인들과 부녀자들은 모판에 둘러앉아 구수한 옛말이나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실하게 자란 모를 정히 떴다.

그리고는 어른, 아이 할것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다 떨쳐나서 논판에 모를 정성담아 꽂았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모내기때는 고양이손도 빌린다》, 《모내기철에는 아궁앞의 부지깽이도 뛴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본사기자

더위를 먹었을 때

더위에 대한 체온조절이 잘되지 않으면 더위를 먹는데 사고력이 둔해지고 머리아픔, 설사,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더위로 하여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찬 음식이나 청량음료만 먹으면 몸이 약해지면서 병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먹는 량은 적어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광물질이 풍부한 식료품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식욕을 돋구기 위해 향신료나 향기가 센 향남새를 먹어야 한다.

오이달인물: 오이는 몸안에 쌓인 열이나 습기를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

오이는 생것으로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익히면 리뇨작용을 세게 하기때문에 달여먹으면 좋다.

록두죽: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 먹는다.

록두는 센 리뇨작용과 몸안의 열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때문에 여름에 더위를 먹었거나 입맛이 없을 때 좋다. 록두로 죽을 쑤면 먹기도 쉽고 입맛도 돋구어준다.

본사기자

유모아

누가 깜깜인가

훈장: 《나무가지에 열마리의 새가 앉아있다. 사냥군이 총으로 한마리를 쏴떨구었다. 몇마리가 남았느냐?》

아이: 《한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훈장: 《뭐라구? 에끼 이 녀석, 넌 산수에선 정말 깜깜이구나.》

아이: 《훈장님이 새에 대해서 아예 깜깜입니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